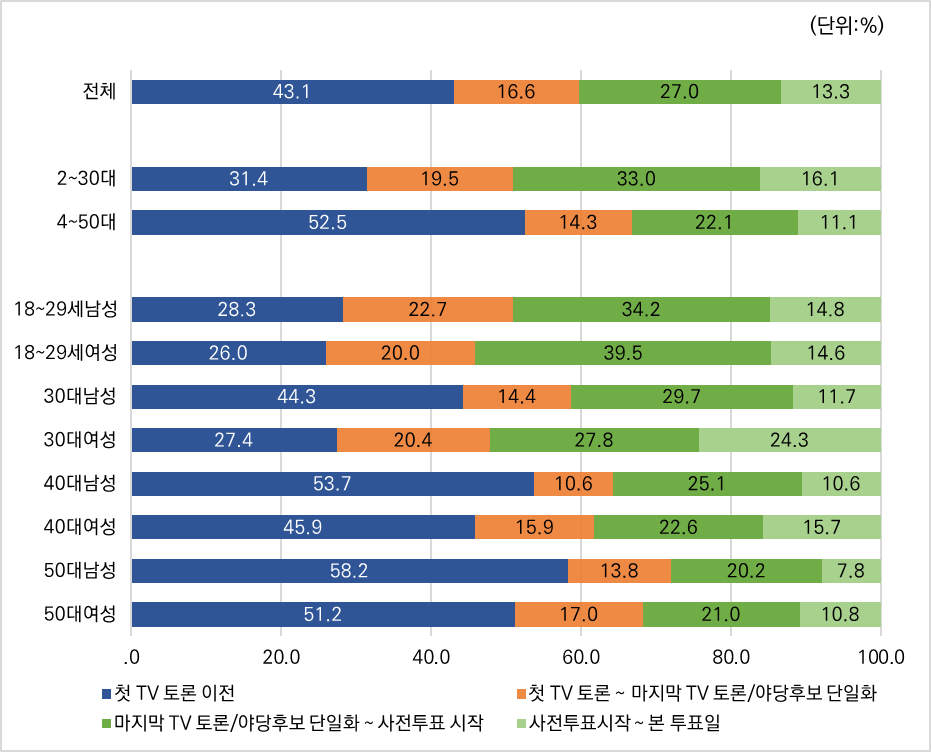
|  |  |
| --- | --- |
|  | **2022. 4. 1.**  **보도자료** |
| **󰂕 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정원빌딩 6F**  **☎02-785-9564 Fax02-785-9565 이메일**[**sti9564@gmail.com**](mailto:sti9564@gmail.com)**홈페이지**[**https://goodsti.com**](https://goodsti.com/) | |
|  | |

**[제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 2030 절반 가까이 ‘야권단일화 이후’ 투표 후보 선택해**

**윤 후보 투표한 유권자, 투표 이유 ‘상대 후보 또는 정당이 싫어서’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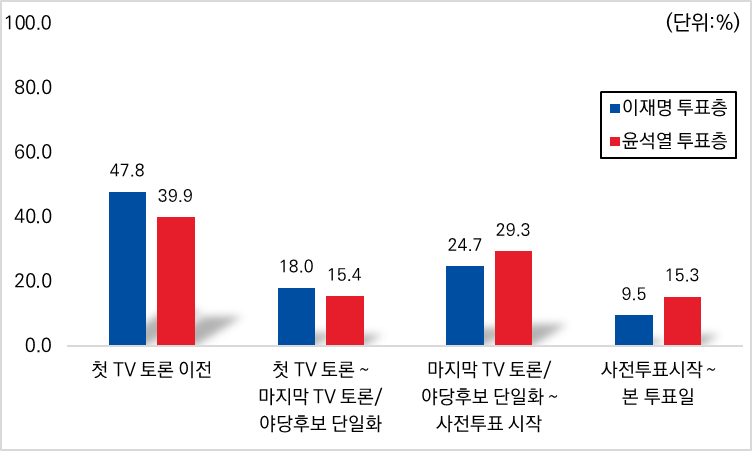
이번 대선에서 2030 유권자들의 절반 정도가, 누구에게 투표할 지 야권단일화(3월 3일) 이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정당학회-중앙일보-에스티아이가 실시한 제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의 3차 조사의 결과이다. 이번 패널조사는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의 정치의식과 표심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조사대상에게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로서, 응답자들의 표심과 여론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응답자들에게, 언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였는지 물었을 때, 2030세대에서는 ‘마지막TV토론/야당후보 단일화 이후’라는 응답이 49.1%로, 4050세대(33.2%)보다 더 늦게 투표 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을 조금 더 나누어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54.1%로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52.1%), 20대 남성(49.0%), 30대 남성(41.4%) 순이었다.



<그래프1> 연령⬝성별 투표 후보 결정 시점

투표한 후보별로 투표 후보를 결정한 시점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은, ‘첫 TV토론 이전’에 투표 후보를 결정한 비율이 47.8%였고, ‘마지막TV토론/야당후보 단일화 이후’에 결정한 경우는 34.2%였으나,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은, ‘마지막TV토론/야당후보 단일화 이후’에 결정한 비율이 44.6%였다. 즉,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결정은 좀 더 일찍 이루어진 데 반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결정은 좀 더 늦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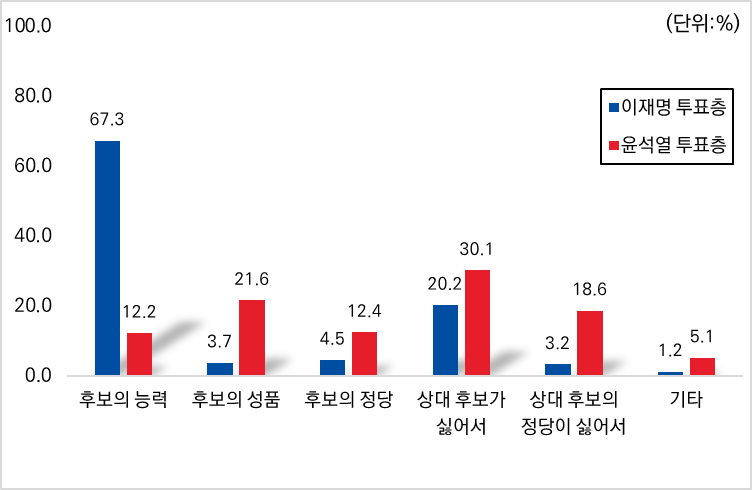
<그래프2> 투표 후보별 투표 후보 결정 시점

또한 투표 후보 결정 시점 별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마지막 시점에 투표 후보를 결정한 층에서, 윤 후보로 표가 더 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투표 후보 결정 시점 | 투표한 후보 | | | | | |
| 사례수 | |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기타 후보 |
| 가중되지 않은빈도 | 빈도 |
| **전체** | **(1529)** | **(1525)** | **51.0** | **42.4** | **4.0** | **2.6** |
| 첫 TV 토론 이전 | (674) | (656) | 56.7 | 39.3 | 3.1 | .9 |
| 첫 TV 토론 ~ 마지막 TV 토론/야당후보 단일화 | (250) | (253) | 55.4 | 39.4 | 3.2 | 2.1 |
| 마지막 TV 토론/야당후보 단일화 ~ 사전투표 시작 | (406) | (412) | 46.7 | 46.0 | 4.6 | 2.7 |
| 사전투표시작 ~ 본 투표일 | (199) | (203) | 36.3 | 48.7 | 6.5 | 8.6 |

<표1> 투표 후보 결정 시점별 투표 후보 분포

한편, 투표한 후보별로 그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투표자의 경우 ‘후보의 능력’ 이라는 응답이 67.3%로 가장 많은 반면, 윤석열 후보 투표자의 경우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30.1%로 가장 많았다. ‘상대 정당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18.6%였다. 즉, 윤석열 후보 투표자의 48.7%가 ‘상대 후보나 정당이 싫어서’ 윤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것이다.



<그래프3> 투표 후보별 투표 후보 결정 이유

투표 후보 결정시기별로도, 투표 후보를 선택한 이유가 달랐다. 투표 후보 결정 시점이 뒤로 갈수록, 상대 후보나 정당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표 후보**  **결정 시점** | **투표 후보 결정 이유** | | | | | | | |
| **사례수** | | **후보의 능력** | **후보의 성품** | **후보의 정당** | **상대 후보가 싫어서** | **상대 후보의 정당이 싫어서** | **기타** |
| **가중되지 않은 빈도** | **빈도** |
| 첫 TV 토론 이전 | (674) | (656) | 47.7 | 13.9 | 7.2 | 20.6 | 7.4 | 3.1 |
| 첫 TV 토론 ~ 마지막TV토론/야당후보 단일화 | (250) | (253) | 43.2 | 14.0 | 7.1 | 22.4 | 10.2 | 3.0 |
| 마지막TV토론/야당후보 단일화 ~ 사전투표 시작 | (406) | (412) | 37.0 | 10.8 | 8.9 | 30.1 | 9.7 | 3.5 |
| 사전투표시작 ~  본 투표일 | (199) | (203) | 23.9 | 12.3 | 8.9 | 30.3 | 18.5 | 6.2 |

<표2> 투표 후보 결정 시점별 투표 후보 결정 이유

이준호 에스티아이 대표는 “2030 유권자 절반 가량이 사전투표 전날까지도 표심 결정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심 이동 방향 역시 연령별, 성별 차이를 보였다. 2030세대의 부동화 및 표심의 분화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또한 “투표 후보 결정이 늦을수록 적대적 혹은 부정적 투표(negative voting)가 지배적인 양상으로 확인된다. 양대 진영의 적극적 지지층 뿐만 아니라 중도층 역시도 적대적 투표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지적하였다.

**[제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 안철수 후보 지지층 – 이 후보, 윤 후보 골고루 이동해**

**2차 조사 안철수 후보 지지층 : 3차 조사에서 이재명 투표 38.3%, 윤석열 투표 37.7%**

**안철수 후보 호감도 단일화 이후 하락 : 1차 조사 43.5 → 2차 조사 45.5 → 3차 조사 (단일화 이후) 39.9**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장면을 꼽자면,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장면이 단연 첫쨰로 꼽힐 것이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수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차기 국무총리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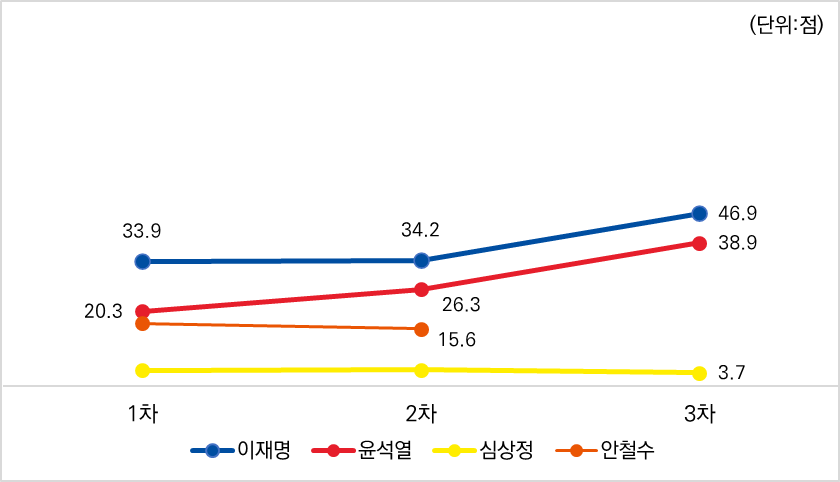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표는 단일화로 인해 대부분 윤석열 후보에게 갔을까? 이번 조사 결과는 적어도 2050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차 패널조사(2월 17~24일 실시)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던 패널들의 실제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38.3%가 이재명 후보에게, 37.7%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여, 두 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1차 조사(1월 19~25일 실시)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투표결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 46.1%, 이재명 후보 33.1%로 윤석열 후보에게 더 몰린 것을 볼 수 있다. 즉,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은 단일화 이전에 이미 윤 후보에게로 이동하고 있었고, 단일화 이후에는 오히려 이 후보, 윤 후보에게로 거의 동일하게 나누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표 후보** | | | | | | | |
| **합계** | | **이재명** | **윤석열** | **심상정** | **기타 후보** | **투표하지 않음** |
| **가중되지 않은빈도** | **빈도** |
| 2차 조사 지지후보 | 이재명 | (593) | (577) | 88.0 | 7.1 | 0.5 | 0.5 | 3.9 |
| 윤석열 | (434) | (437) | 2.9 | 90.3 | 0.7 | 0.6 | 5.6 |
| 심상정 | (79) | (83) | 53.1 | 15.2 | 26.6 | 0.0 | 5.1 |
| 안철수 | (277) | (281) | 38.3 | 37.7 | 8.2 | 4.4 | 11.4 |
| 기타후보 | (23) | (23) | 42.2 | 14.0 | 8.5 | 21.7 | 13.6 |
| 없다 | (71) | (71) | 31.1 | 28.8 | 2.5 | 8.4 | 29.2 |
| 모르겠다 | (85) | (86) | 35.6 | 33.8 | 3.4 | 7.7 | 19.5 |
| 1차 조사 지지후보 | 이재명 | (655) | (639) | 82.6 | 10.6 | 1.3 | 0.7 | 4.8 |
| 윤석열 | (371) | (372) | 6.8 | 87.0 | 0.5 | 0.3 | 5.3 |
| 심상정 | (91) | (96) | 43.0 | 23.9 | 23.3 | 2.1 | 7.6 |
| 안철수 | (312) | (317) | 33.1 | 46.1 | 6.3 | 4.7 | 9.7 |
| 기타후보 | (31) | (31) | 35.4 | 29.2 | 3.0 | 18.9 | 13.4 |
| 없다 | (91) | (93) | 27.4 | 35.6 | 1.0 | 7.9 | 28.1 |
| 모르겠다 | (110) | (113) | 37.5 | 37.9 | 5.4 | 3.9 | 15.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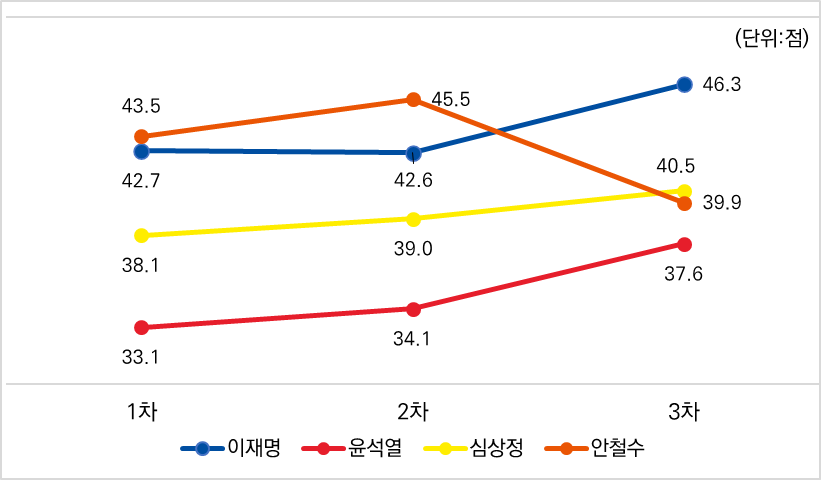
<표3> 1,2차 조사 후보별 지지층의 실제 투표 결과

1, 2, 3차 조사에서의 후보 지지도를 살펴보면, 1, 2차 조사 사이에 윤 후보 지지율 상승폭이 이 후보 지지율 상승폭 보다 큰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다. 이 시기에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에게로 상당수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 3차 조사 사이에는 이, 윤 두 후보 지지율 상승폭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단일화 이후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이, 윤 후보에게 골고루 이동했다는 앞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그래프4> 후보 지지율 변화

그렇다면 안 후보의 단일화 결정은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본 패널조사에서는 매 회마다 각 후보의 호감도를 100점 만점으로 물어보았는데, 1~3회차에 거친 호감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안철수 후보의 호감도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는 상승폭이 후보들 중 가장 컸으나, 3차조사에서는 오히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치인 안철수의 호감도는 후보 단일화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5> 안철수 후보 호감도 변화

**[제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 대선 투표 정당, 지방선거 투표 정당으로 그대로 이어지진 않을 것**

**이 후보 투표층 : 지방선거(광역단체장) 민주당 찍겠다 58.6%**

**윤 후보 투표층 : 지방선거(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찍겠다 54.6%**

올해는 대선 이후 3달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예측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재명 후보 투표층의 58.6%가, 오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윤석열 후보 투표층은 54.6%가 국민의힘 후보를, 8.8%가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후보 투표층의 34.6%, 윤 후보 투표층의 31.5%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가, 이후 지방선거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표**  **후보**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지지 정당(후보)** | | | | | | | | |
| **사례수** | | **더불어민주당** | **국민**  **의힘** | **정의당** | **국민**  **의당** | **기타**  **정당** | **모르**  **겠다** | **지지정당후보없음** |
| **가중되지않은빈도** | **빈도** |
| 이재명 | (790) | (778) | 58.6 | 2.5 | 1.9 | 1.5 | 0.9 | 16.4 | 18.2 |
| 윤석열 | (640) | (646) | 3.2 | 54.6 | 1.5 | 8.8 | 0.3 | 13.3 | 18.2 |

<표4> 대선 투표후보별 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지지 정당(후보)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가, 투표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보다는 상대 후보나 정당에 대한 반대 정서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와 같은 결과를 뒷받침한다. 후보의 능력이나 성품, 정당이 좋아서 투표한 경우, 지방선거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0%대로 높은 반면, 상대 후보나 상대 정당이 싫어서 투표한 경우, 부동층이 40%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표**  **후보** | **투표**  **이유**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지지 정당(후보)** | | | | | | | | |
| **사례수** | | **더불어민주당** | **국민**  **의힘** | **정의당** | **국민**  **의당** | **기타**  **정당** | **모르**  **겠다** | **지지정당 후보없음** |
| **가중되지**  **않은빈도** | **빈도** |
| 이재명 | 후보의 능력,성품,정당 | (602) | (587) | 63.2 | 2.7 | 1.1 | 1.4 | 1.0 | 14.3 | 16.3 |
| 상대후보 상대정당 싫어서 | (179) | (182) | 45.6 | 1.2 | 4.9 | 2.0 | 0.5 | 22.6 | 23.1 |
| 윤석열 | 후보의 능력,성품,정당 | (296) | (298) | 3.3 | 62.9 | 1.6 | 9.1 | 0.3 | 10.6 | 12.2 |
| 상대후보 상대정당 싫어서 | (312) | (315) | 3.5 | 48.1 | 1.6 | 7.5 | 0.3 | 15.5 | 23.6 |

<표5> 대선 투표후보 / 투표 이유별 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지지 정당(후보)

연령⬝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 투표자들 중 20대 남녀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 투표층에서는, 30대 여성과 40대 여성층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한편 윤석열 후보 투표층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성별 층도 있었다. (30대 여성-13.0%, 20대 남성 11.9%, 50대 여성 11.7%, 30대 남성 11.1%) 이재명 후보 투표층의 20대 남녀에서도 국민의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7%, 6.3%로 다른 연령⬝성별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향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과정에서 이와 같은 유권자들을 얼마나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표**  **후보** | **연령 성별** |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지지 정당(후보)** | | | | | | | | |
| **사례수** | | **더불어민주당** | **국민**  **의힘** | **정의당** | **국민**  **의당** | **기타**  **정당** | **모르**  **겠다** | **지지 정당 후보 없음** |
| **가중되지 않은빈도** | **빈도** |
| 이재명 | 20대남성 | (46) | (55) | 52.1 | 10.2 | 0.0 | 6.7 | 0.0 | 10.8 | 20.2 |
| 20대여성 | (80) | (98) | 53.0 | 1.1 | 2.6 | 6.3 | 2.3 | 13.8 | 21.0 |
| 30대남성 | (77) | (74) | 63.3 | 1.4 | 0.0 | 0.0 | 2.6 | 14.3 | 18.4 |
| 30대여성 | (71) | (74) | 56.2 | 2.8 | 1.3 | 1.3 | 1.4 | 21.0 | 16.1 |
| 40대남성 | (113) | (106) | 61.0 | 3.5 | 0.0 | 0.0 | 0.0 | 18.7 | 16.7 |
| 40대여성 | (124) | (122) | 59.2 | 2.4 | 0.0 | 0.0 | 0.0 | 17.3 | 21.0 |
| 50대남성 | (141) | (127) | 63.9 | 0.7 | 4.3 | 0.0 | 1.5 | 12.7 | 17.0 |
| 50대여성 | (138) | (123) | 56.6 | 1.4 | 5.0 | 0.7 | 0.0 | 20.4 | 15.9 |
| 윤석열 | 20대남성 | (102) | (122) | 3.7 | 50.4 | 0.9 | 11.9 | 0.0 | 18.7 | 14.3 |
| 20대여성 | (47) | (58) | 6.2 | 51.1 | 2.2 | 6.2 | 0.0 | 11.5 | 22.8 |
| 30대남성 | (89) | (86) | 2.1 | 59.4 | 2.3 | 11.1 | 0.0 | 10.2 | 14.9 |
| 30대여성 | (60) | (62) | 5.6 | 39.6 | 1.5 | 13.0 | 0.0 | 11.5 | 28.8 |
| 40대남성 | (96) | (90) | 1.0 | 71.9 | 0.0 | 4.1 | 1.1 | 9.4 | 12.5 |
| 40대여성 | (63) | (63) | 4.6 | 46.7 | 1.5 | 6.5 | 0.0 | 17.3 | 23.4 |
| 50대남성 | (99) | (89) | 4.1 | 56.1 | 3.1 | 5.2 | 0.0 | 13.0 | 18.4 |
| 50대여성 | (84) | (76) | 0.0 | 55.2 | 1.1 | 11.7 | 1.1 | 12.9 | 17.9 |

<표6> 대선 투표후보 / 연령⬝성별 지방선거(광역단체장선거) 지지 정당(후보)

|  |
| --- |
| 조사 의뢰자 | 한국정당학회, 중앙일보  선거여론조사기관 | (주)에스티아이  조사지역 및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조사일시 | 2022년 3월 11일 ~ 15일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한 인터넷 조사 및 스마트폰 앱 조사()  표본의 크기 | 1,661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1차 패널조사 응답자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 발송  응답률 | 79.7% (총 2,091명에게 발송, 2,083명 접촉, 1,661명 응답 완료)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 성별, 연령, 권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4%p  질문내용 | 대선투표후보, 대선평가, 지방선거 정당 지지율 등 선거에 대한 인식 |

**[조사 소개] 20대 대선 2030 패널조사**

‘제20대 대통령선거 2030 패널조사’(이하 2030 패널조사)는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에서 기획하여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1차 패널조사를 진행하였고,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2차 패널조사,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차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대한 내용 및 투표 의사를 시간을 두고 반복하여 질문하면서 추적하는 조사방법입니다. 특히 2030세대를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기획되어, 이번 대선에 대한 정치의식과 표심을 세대별, 성별로 비교하여 보는 데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호감도, 응답자와의 이념적 거리, 각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대선 지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1차 조사가 이루어진 뒤 약 한 달 뒤 투표에 임박한 시점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대선 투표 직후에 3차 조사를 실시하여 투표 이유와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2030 패널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연령별, 성별 차이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2030세대와 그 비교군인 4050세대를 조사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0대 이상 응답자가 없음에 유의하여 조사결과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2030 패널조사는 인터넷 조사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여론조사는 전화를 통해 면접원의 음성이나 ARS 녹음된 음성으로 조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인터넷 조사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사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내용을 음성이 아닌 문자로 제시하기 때문에 응답자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따라서 정확한 응답을 얻는 데에 더 유리합니다. 다양한 정책이슈,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다방면의 평가를 진행하는 이번 조사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조사방법입니다.

2030 패널조사 1차 조사의 표본은 회원가입 등으로 구축된 기존 온라인 패널에서 추출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21년 12월 기준)에서 확인된 인구 구성비에 따라 성, 연령, 지역별 층화 무작위 추출하였습니다. 기존 온라인 패널은 패널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으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패널 수가 175,972명에 달하고 그 조사결과가 여타 다른 표집틀을 이용한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표집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일회성 지지율 확인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시일을 두고 반복 실시하는 패널조사로 진행되므로 정확성을 기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유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차 조사는 1차 조사에 응답한 패널 2,100명 중 2차 조사에서 결번으로 나타난 9명을 제외한

2,0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1,66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패널 유지율 79.1%)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2.4%포인트(신뢰 수준 95%), 응답률은 7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